

#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능력 -10분 복음소식 강해

고린도전서 1:18

정윤돈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목사의 간증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 다시금 복음소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시골이어서 대상자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집을 돌면서 그 앞에서 복음소식,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20곳, 30곳 되는 무당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한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번에 지교회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왔는데, 자기는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영접하자마자 전도를 하고 싶어서, 자기 아이에게 가서 배워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누가 복음메시지를 하면 촬영을 해서, 집에 가서 똑같이 또 따라한다고 한다. 그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 가서 지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인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흑암을 꺾으실 것이다.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재앙과 전쟁을 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제사장들 때문에 시대마다 문제가 왔지만, 그때 남은 자 램프, 그루터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재앙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 1. 구원받은 자의 다섯 가지 확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 (1)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다.
- (2) 둘째는 인도의 확신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 무를 수가 없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 임지신다. 홍명숙 권사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잡사님께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라 해도 내 뜻 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하다.
- (3) 셋째는 승리의 확신이다.
- (4) 넷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 (5) 다섯째는 사죄의 확신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해결 하셨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된다. 더러워졌으면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 2. 영접의 의미와 가치

영접의 의미를 깊이 알고 묵상할수록 역사가 대단하다. 바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지식도 있었고 학식도 많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배승찬 집사님과 이명 집사님을 봐도 그렇다. 복음소식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하시는 것이다. 집중신학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전도집중훈련을 7기, 8기까지 받으니까,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야, 저분들이 있으면, 로마서 16장 사람들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싶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다. 영접의 의미를 깊이 아는 것이다.

- (1) 영접이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영접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 (2) 영접이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혼돈, 흑암, 공허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연애 아무리 해도 결국 후회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연애인 아무리 해도, 인기 떨어지면 결국 혼돈, 흑암, 공허가 오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도자로 설 때 계속 응답이 오게 된다.
- (3) 영접이란, 기도응답의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는 신분 변화의 대 전환점이다.
- (4) 영접이란, 내가 확실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며,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서약이요, 공포(公布)다. 부모도 그냥 같이 살면 되지만, 이것을 사람 앞에서 공포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지 않나. 영접도 마찬가지다.

지다.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 (5) 영접이란, 사단과 영원히 결별하는 중요한 영적 사건이다.
- (6) 영접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다. 생명의 생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것이다.
- (7) 영접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접의 의미와 가치는, 최고 관심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때 진지하게 해야 한다.
- (8)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접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순간이요 두려운 순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임하기 때문이다. 사단의 권세를 뽕뽕 뚫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탄생하는 것이다.
- (9)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운동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 (10) 성심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 (11) 영접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고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다.
- (12) 결국 우리는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 3. 복음소식의 내용

복음소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창조의 원리,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복음소식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1에 대한 내용이다. 왜 이런 문장이 필요한가? 처음에 17분 복음소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을 지으셨습니까'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진 불교용어예요' 해서 고쳤다. (웃음) "이 세상에는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냥 만든 게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시다. 어떻게 사람을 예정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는가. 그런데 인간을 로봇처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다. 따먹을 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증명할 길이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되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다. 인간이 로봇과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 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구원의 길, 복음소식 메시지 속에 조직신학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은 최고의 신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복음소식 안에 다 있음을 알게 된다. 심리학도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다. 서울대 심리학자를 다니는 친구가, 복음메시지는 수준이 낮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심리학자 중에서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밝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아무도 없다.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최고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는 32억 개의 DNA도 인간은 분석하지 못한다. 자신을 치유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신묘막측한 것이다. 하나님은 능동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고백될수록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진화론,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별 것도 아닌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

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2)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이 없다. 그런데 형상이라고 했다.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부족함이 없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다. 최고의 권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질병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실하니까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다. 인간의 문제가 몇 가지인가? 5만 가지다. 그것을 정리하니까 12가지다.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인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이 다 담겨 있다. 중요한 발견과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이루어졌다. 중요한 원리는 다 성경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랜드캐년을 가 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이 그랜드캐년이 수천만 년 동안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인트헬렌 산이 폭발하면서 그랜드캐년과 같은 지형이 짧은 시간에 형성됨으로써,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화산의 폭발로 인해 짧은 시간에 10미터가 넘는 화산재 먼지가 쌓였다. 만년설이 녹으면서 홍수처럼 물이 쏟아졌다. 대홍수 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형의 모양이 그랜드캐년과 똑같아졌다. 이게 1, 2년 만에 생겨졌다. 그 밑에 석탄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구의 지각과 지질이 노아의 홍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없으니까 시간을 늘려서 저절로 생겼다고 해결하려고 한다. 석유를 항상 쓰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해석하지 못한다. 노아의 방주 이후 죽은 동물의 사체가 급격하게 썩어가면서 석유가 된 것인데, 세상의 진화론 과학은 이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패되어서 생긴 것처럼 설명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썩으면 어떻게 되는가? 뼈만 남지 않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이 증명되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철학, 선행,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이다.

(4)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도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24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세계를 살리고, 기념비를 이 땅에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도자, 지역과 사회와 가문을 구원하는 전도자, 시대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영적 자극을 받고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좌충우돌했던 것, 영원한 것이 있는데 놓쳤던 것,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최고의 복음을 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7.30.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 새생명새생활 11과

### 예배하는 생활

요한복음 4:24, 역대상 16:29

김요셉 목사님

#### 서론

나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 예배할 때 가장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다. 창세기 1:27 회복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성령이나 악령이나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명상운동으로 접신을 하고 있다. 또다른 영적 평안함을 얻고 있다.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성령을 언제 체험하는가? 예배할 때다. 시간표는 언제인가?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시간표다. 예배드릴 때 예배하는

것, 훈련받을 때 훈련받는 것이 시간표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시간표다. 덜 컸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시간표가 아니다.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시간표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다. 예배는 그냥 힘이 아니라 참된 힘이다(행1:8).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진짜 행복을 체험하라.

#### 1.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다.

#### 2. 예배의 자세

사랑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람에게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강단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된다. 예배의 자세는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야 들리게 된다. 그 말이 전달되고 적용되고 성취된다.

#### 3. 예배의 내용

(1) 찬송이다(히13:15). 우리의 찬송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뿐이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2) 기도다(계8:3-5).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70억 인구가 다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도한다. 제사지낸다. 우상을 섬긴다. 그게 운명 사주팔자다(엡2:1-2).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3)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을 가장 잘 타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해도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안 맞게 된다. 흐름과 안 맞기 때문이다.

(4) 헌금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늘 드려도 부족한 것이다.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빨리 되어야 한다.

#### 4. 예배의 종류

24시가 예배다. 숨쉬는 것이 예배다. 일하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잠자는 것도 예배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예배다. 예배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5기초를 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삶이 24시 예배다.

#### 5.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답이 된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답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된다. 학습의 능력, 산업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계속 사모해 보라.

#### 결론

(1)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예배를 사모하라.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될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다(히4:12). 말씀을 정말 사모하라.

(2) 그 받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 또 다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라. 다시 듣고, 기록하고, 암송해 보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 보라. 그게 묵상이다. 고백하고 듣고 시인하고 써 보라. 그게 묵상이다.

(3) 그러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산업, 학업,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현장마다 성취되고 전달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